

갤러리 색즉시공



김호석 작 <한운은-파리>


만해 스님 생각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인간에 대한 본질도, 안목도, 대접할 예의도 없는 듯하다. 원칙과 상식, 과정과 절차가 소외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적폐를 생각하면 만해 스님이 떠오른다. 스님은 사회를 꿈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스님은 비껴서 있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정면으로 서있는 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정신은 그의 시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작고 더럽고 밍살스런 파리야 (중략) / 너는 흰 옷에는 검은 똥칠을 하고 / 검은 옷에는 흰 똥칠을 한다 (중략) 그렇다. 나는 작고 더럽고 밍살스런 파리로 너는 고귀한 사람이다 / 그러나 나는 어여쁜 여왕의 입술에 똥칠을 한다 / 나는 황금을 짓밟고 탁자에 발을 씻는다 / 세상에 보검이 산같이 있어도 나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 한다 (중략) / 너희는 나를 더럽다고 하지마는 너희들의 마음이야말로 나보다는 더욱 더러운 것이다 /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없는 죽은 사람을 좋아 한다” <한운은의 '파리'에서>

이 시의 의미는 크다.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정신을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은 생명의 원천이고 힘이다. 인간정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다. 만해 스님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 다시 불러오게 한 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에 추상같은 불호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호석 작가는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을 계승한 국내 초상화 분야의 화가로, 만해·성철·광덕·법정 스님 등의 진영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림·글 김호석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그리운 석정 스님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불모 석정 스님의 편지>

보살님 무덤과 비나리오는 삼복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나는 요즘 죽은 뒤에 몸을 동대 병원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은 뒤에 몸을 썩혀 내버려거나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피 한 방울 털 한 개라도 쓸 수 있으면 좋고, 몸을 학습용으로 써도 보람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나의 마지막 작은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보살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측근에서 몇 사람이 동참하기로 하고 백중 후에 일부러 내려와서 수속해준답니다. 신도 여름 석정 상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스님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느껴졌다. 자신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힘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에 대한 한 때문인지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도 오래 이어졌다. 승속과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다름이 없는 것 같았다.

스님께서는 사형인 효봉 스님에 대한 회고도 길게 들려주었다. 스님은 효봉 스님께서 3년 기한을 잡고 공부가 안되면 토굴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정진할 때 결에 있었다고 했다. 판사직에 있다가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하신 효봉 스님이 그 유명한 오도송을 남긴 금강산 법기암 이야기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효봉 스님과는 손잡고 원정리도 가고 온천도 하러 가고 했어요. 판사를 그만두고 옛판을 짚어지고 전국으로 영정사로 다니다가 보운암에 와서 우리 스님한테 출가하셨죠. 스님은 법기암에서 얼마 안 되는데 한 칸 토굴을 짓고 들어가 서서는 작은 창하나만 남겨놓고 마지막에 벽을 발라놓으셨어요. 나는 그때 법기암에서 멀지 않은 봉래암이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가서 보면 가끔 효봉 스님이 창문으로 잠깐 내다보곤 했어요. 뒤를 보면 바깥으로 내놓고 일체 출입을 안 하셨죠. 법기암 스님이 하루에 한 끼씩만 점심을 가져다 드렸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엔 솜을 넣은 보자기에 밥을 싸서 가져다 드리는 걸 보았어요. 우리 스님이 견성은 못하더라도 3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따르신 거겠죠. 효봉 스

님에게 우리 스님은 은사뿐만 아니라 법사이셨으니까요.”

1년 8개월 만에 오도송을 짓고 나오신 효봉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동구불출, 오후불식 장좌불와, 목언 네 가지 규칙을 정해 엄격하게 지키셨다고 하는데, 자신만의 처절한 공부 때문이 아닌가 싶다.

스님의 금강산 이야기는 실타래 풀리듯 마치 어제 이야기인 듯 술술 풀려나왔다.

“금강산 정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시겠네요? 조계종에서 신계사를 복원해놓았는데 한번 안 다녀오세요?”

“어려서부터 성장한 곳인데 눈감고도 흰하죠.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간다고 해도 죄수를 호송하는 것 모양으로 길을 정해놓았다고 하죠? 내가 살던 곳이 신계사에서 5리 거리인데도 마음대로 가보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그런 입장에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지요.”

가봐야 살던 곳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것이 속상해서 그토록 그리운 고향을 찾지 않는다는 스님께서는 금강산을 찾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 그림을 그리는 화원 가운데 오른 손을 싸매고 불화를 그리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불화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으로 신심을 다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아이 손처럼 때가 안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불사를 하는 와중에 금강산에 갔다 못 나오면 불사를 끝내지 못하니까 더욱 갈 수가 없죠. 불사가 없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나 가보려고 해요. 신계사를 책임지고 불사하는 스님에게 혹시 가능하면 우리 집터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고 지도를 그려주었어요. 우리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세 개 있었거든요. 오십 년 묵었으니 숲이 되어있을 거예요. 법기암 가는 지도도 그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녀오는 길에 원정리에 있는 물을 길어와 한통 가져왔더군요.”

연세에 견주어 스님의 음성은 명료하고 침착하셨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었다. 나는 금강산 신계암에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금강산이 고향이신 혜해 스님이 그곳에 계시실 때 다녀왔다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귀를 세우셨다.

스님께서 그런 부처님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엄숙함과 자애로움이 공존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음성과 혀는 드러나지 않는데,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그림 수 있어야 한다” 고 답하셨다고 한다. 저 천진한 무심이 그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음에 감히 짐작해보았다.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음성과 혀까지 드러나도록 그림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도를 이루셨을 스님이, 가끔 금강산이 떠오를 때마다 함께 생각한다.

석정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면벽달마, 관음보살, 원왕을 그린 작품 세 점을 보내주셨다. 스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면 늘 문밖에까지 배운 해주셨다. 그리고 후에 편지 한 통을 보내셨다.

<여여원 원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종 요기마을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융용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